

‘익산다이로움’ 시민 호응

월 생활비 100만원 쓰면 3개월에 63만원 적립 혜택 발행 3개월만에 2만5014명 가입, 이용자 꾸준히 늘어

익산시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기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익산다이로움’ 인센티브 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개인별 인센티브 혜택 금액을 100만원까지 확대하고 결제금액의 10%를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으로 돌려준다

고 발표한 이후 시민들의 충전금액과 결제금액이 급격히 상승했다.

익산시 분석 결과 시민들이 3월 한달여 동안 다이로움 70여만원을 충전했다. 특히 최대 100만원까지 인센티브 10% 혜택을 확대한 3월 26일 이후 10일만에 46억원이 충전됐다.

4월부터 충전금액의 10%를 되돌려주는 소비촉진지원금(페이백) 제도를 실시한 이후에는 6일 만에 12억원이 결제됐다.

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월 생활비를 100만원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 소비촉진 지원금(페이백)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6월까지 3개월 동안 총 63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사용하면 3개월에 126만원까지 혜택은 늘어난다.

사용업소는 음식점이 26.7%로 가장 많이 사용됐으며 슈퍼와 마트 20.8%, 병원 10.6%, 주유소 7.6%, 학원 6.5%, 기타 10.1% 순으로 나타났다.

‘익산다이로움’은 일부 대형마트, 본사 직영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없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점포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점차 이용자가 늘어남에 따라 다이로움 사용 가능 여부를 홍보하기 위해 별도로 가맹점 등록(가맹점

등록시 착한페이앱 지도상에 가맹점 위치 표시 및 가맹점 사진, 정보 등을 입력할 수 있음)을 신청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또한 업체에서 ‘익산다이로움’ 가맹점 스티커를 꾸준히 요구하고 있어 가맹점 스티커 대신 출입문 부착용 홍보 스티커와 홍보물을 전 가맹점에 4월중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처럼 익산 지역화폐의 사용 증가는 지역 내 소비문화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이로움을 사용하고 있는 한 시민은 “익산다이로움은 3달 동안 월 100만원씩 충전하여 사용하면 1인당 63만원, 4인 가족인 경우 252만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재산, 직업 따지지 않고 병원비, 자녀학원비 등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하니 재테크보다 더 낫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6일 기준 익산시가 발행한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은 116억여원 규모로 총 2만5천여명이 가입해 사용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요리를 제공할 공중보건의사 14명을 배치하고 근무 지정서 교부 및 근무의 내실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산시 공중보건의사 14명 추가 배치

주민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군산시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지사를 추가 배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요리를 제공할 공중보건의사 14명을 배치하고 근무 지정서 교부 및 근무의 내실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직무교육은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간소화하고 중요사항만 교육했다.

직무교육의 내용은 군산시 일반현황과 보건현황,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행정사항 등 2020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신규 공중보건의사들에게 “지역의 건강지킴이로서 사명감과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확산방지 등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산시에는 보건소를 포함한 14개소의 보건지소에 의과 18, 치과 5, 한의과 5 등 총 2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요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24시간 선별진료소 운영과 대구지역 의료진 파견 등으로 잠정중단 및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다함께 힘내요”... 잇단 성금 ‘훈훈’

군산대 교직원 일동 1242만원 · 군산YMCA 500만원 기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 내 훈훈함을 자아냈다.

군산시는 8일 군산대학교(총장 박병선)에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교직원들이 모은 성금 1,242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병선 총장은 “교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위기 극복을 위한 선한 기부 운동이 더욱 확산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사)군산YMCA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군산시에 500만원을

전달했다.

군산YMCA는 청소년 육성사업과 문화사업을 주요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 청소년수련관과 군산 청소년 문화의 집 등 청소년 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김강권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취약계층과 고생하시는 의료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군산YMCA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준 군산시장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신



군산대 교직원들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모은 성금 1,242만원을 기탁했다.

군산대학교 교직원분과 군산YMCA에 감사드리며, 덕분에 우리 사회가 더욱 살기 좋은 행복 도시가 될 수 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공동모금회에 전달되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노후 공동주택 지원

올 사업비 초 6억300만원 25개 단지 최대 2500만원

군산시는 생활환경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이하(2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85㎡이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단지며 ‘군산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단지를 선정한다.

지난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지력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소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옥상방수, 외벽도색 등 노후화된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해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274개 단지에 81억원

을 지원하며 주민편익 및 도시경관 개

선에 큰 성과를 이뤘다. 올해도 사업비 6억300만원을 활용해 공동주택의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생활환경개선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지원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후 지난달 23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25개 단지에 대해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비해 보다 형평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그동안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보완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수 안전건설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지쳐 있는 주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한편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관광업계 지원

군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 지원에 나선다.

군산시는 총사업비 4억4,1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행업체를 비롯한 관광업계를 위해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말 기준 군산시에 등록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등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체로 지정된 6개 분야 147개 업체이다. 단, 동일 업종 내 동일 대표인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하다.

지원금은 업종별 종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종사자 수가 3명 이하인 경우 최대 250만원, 4명 이상~6명 이하인 경우 최대 300만원, 7명 이상인 경우는 최대 4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분야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제반 비용이다. 홈페이지·유튜브 등 제작비 및 홍보비, 전광판·신문 등 광고비, 배너·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비용 등이 포함된다.

시는 이날 6일부터 24일까지 1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 아동복지시설 3곳 전국 평가 ‘최고등급’

익산시내 아동복지시설 3개소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8일 시에 따르면 기동삼애원과 시온유아원, 이리보육원이 최고 A등급(90점 이상)평가의 주인공으로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 도전해 전국 285개 아동복지시설의 평균인 89.6점보다 상회하는 점수를 받았다.

보건복지부의 평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시설 환경 및 재정 조직 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 6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진다.

특히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과 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장에 대한 항목도 중점 평가 대상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